

Dubai, 이산화탄소 없는 도시로

마스다르 3.7평방마일 2009년 완성 예정 ... BP · GE · Fiat 참여

Dubai가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도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Dubai는 3.7평방마일 크기로 1월 조성 공사를 시작한 마스다르(Masdar)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를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지열로만 생산하며 도시에 일체 자동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으로 공사가 순조로우면 2009년 완공될 예정이다.

도시문제 전문 분석기관인 서스테인레인의 리서치 책임자는 “Dubai에 이산화탄소 배출없는 도시를 만들면 다른 곳에서도 같은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완성되면 세계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에는 공해배출 대기업인 BP(Britishi Petroleum)과 Fiat, 그리고 GE(Genral Electronics) 등이 참여하고 있어 성공하면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보너스로 받는 혜택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08>